KIDI
07/11/19

해 외 보 험 동 향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Research Center

◈ 북미

- 미국, 오염보험(Pollution Insurance) 수요 증대
- 미국 노동자들,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 보험금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택소유주들

◈ 유럽

- 로이드 CEO, 보험산업의 미래 '메가트렌드' 제시
- Marsh, 최근 영국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영향력 분석
- S&P, 버뮤다 (재)보험산업 조심스러운 낙관 전망

◈ 일본

- 생보협회와 의사회, 진단서 전자화에 합의
- 손보업계,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으로 대폭 개선
- 손보재팬, 인도 합작 현지법인 12월 영업개시

◈ 중국

- 2007년 3/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3)
- 타이핑양보험그룹 일괄상장에 따른 주식옵션 허용 검토
- 집중휴일제도 변화, 보험회사 상품개발에 영향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오염보험(Pollution Insurance) 수요 증대

o 오염보험은 1980년대 보험사들이 일반책임보험에서 분리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환경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최근 저변이 확대되어가고 있음.

- 역사적으로 이러한 보험은 쓰레기 매립자나 위험물질 운반자들과 같이 규제당국에 의해 오염 커버리지가 강제되었던 회사들에 의해 구입되었으며,
- 1980년대 보험사들은 구입이 강제되는 오염 커버리지를 고객이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 일반책임보험에서 오염 책임 커버리지를 분리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이후 오염보험 상품은 주로 석유관련 대기업,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자 또는 화학회사 등에 의해 판매되었으나,
- 최근에는 실제 산업공해와 관계가 없는 기업들 (예를 들어 소매업자, 아파트 단지, 동물원 등)이 위해물질의 제조, 저장, 배출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음.

o 오염보험의 판매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생각됨.

- 오염보험의 주 판매회사는 AIG, ACE, Zurich, Liberty Mutual 과 Chubb 등이며 미국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3년 500만 달러였던 오염보험 시장규모는 최근 20~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오염보험은 기업들이 환경 리스크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근래의 환경규제 강화,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 개발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커버리지의 기회는 확대되고 있음.

(Houston Chronicle, 11/8)

□ 미국 노동자들,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o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고용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매력은 떨어지고 있음.

- 과거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민영건강보험이라는 대안을 찾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민영건강보험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보다 싸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이 3인 이상 199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37%의 노동자들이 가족을 추가 담보할 경우 추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5%에 불과함.

o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노동자 부담이 늘고 있는 한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건강보험 중개사인 eHealthInsurance는 그들 고객 중 60% 정도가 직장의료보험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함.

o 민영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를 제시하며 이 경우 보통 높은 공제금액과 고객이 부담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포함함.

- 그러나 민영보험의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는 보장에 대해 보상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또한 높은 공제금액을 제시하는 보험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나 특히 현금의료비지출에 있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유리함.
- 단체보험과 달리 보다 적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함.

(CNN Money, 11/12)

□ 보험금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택소유주들

o 이번 LA산불로 인해 약 1400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재건축 비용에 충분치 못한 보험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위험 지역 가구들의 불충분한 보험 가입문제가 이슈로 부각됨.

-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약 40%의 캘리포니아 소재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새로이 교체하는데 충분치 못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함.
- 과거 유사한 재앙 이후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소유주들의 보상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음.
-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대 이후 보험사의 손해 증가로 인해 주택교체를 보장하는 보험의 판매를 거의 중단하였고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주택건설 비용에 한도를 부여함.

o 보험산업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주택소유주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주택의 리노베이션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특정 커버리지를 제외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함.

- 예를 들어 해안지역 주택소유주들이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재해에 대비해 추천되는 커버리지를 추가하지 않고 보험 약관의 내용도 잘 살피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음.
- 또한 보통의 거주자 보험이 홍수피해를 보장해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캘리포니아 정부의 보험 감독관으로 일했던 John Garamendi는 주택소유주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약관의 불명확성 때문이며 보험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미국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대표인 Robert P. Hartwig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주 당국의 어떠한 보고서도 없다며 반박함.

(New York Times, 11/13)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로이드 CEO, 보험산업의 미래 '메가트렌드' 제시

o 로이드의 CEO인 리차드 워드는 지난 7일 Brighton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보험산업이 직면할 기술적 혁명, 날씨변화, 테러위험 증가와 같은 '메가트렌드'에 의해 생겨나는 도전과 위협에 올바른 대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메가트렌드에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날씨변화이며, 예상보다 훨씬 급속한 변화가 진행중이어서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힘.

- 온도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발생 확률이 증가하며 태풍강도도 커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날씨변화로 인한 위험과 전체적인 비용은 적어도 세계 연간 GDP의 5%에 상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며, 추정 피해규모는 GDP의 2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o 테러리즘 또한 여전히 보험산업에서 대비가 필요한 핵심적인 위협 요인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대립 위험은 사이버 테러, 현지 테러, 화학적·생물학적·핵 및 방사능 공격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o 마지막으로 기술적 혁명 부문에서 보험산업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사회적 · 영업적 상호작용의 명령체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o 워드는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증대되고 있으며, 신 중류계급의 성장과 함께 중국과 인도에 의해 구매력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 또한 보험산업은 다재다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였음.

(Insurance Journal, 11/8)

□ Marsh, 최근 영국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영향력 분석

o Marsh는 최근 영국 동부 서퍽주의 칠면조 농장에서 발병한 H5N1 계통의 조류독감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 수반되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인간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으나 조류와 아주 가까이 지내거나 직접 만졌을 경우에 해당할 뿐이며 치사율은 세계적으로 50%에 달하여 가금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광우병 유형처럼 널리 퍼질 가능성은 낮으며,
- H5N1이 축산산업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그 자체로 위협요인은 아니나 축산업과 관련된 영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동 분야와 관련하여 Marsh는 이미 높은 수준의 위생기준과 안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o 또한, 이러한 심각한 질병에 있어 “보험 관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종목별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고용주배상책임 : 대다수 영국기업은 사고당 5백만 유로를 고용주배상책임 의무 책임액으로 두며 예외나 제한 조항을 두지 못하는데, 감염된 고용인들로부터 발생한 클레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줄 것임.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 : 대부분의 기업은 동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조류독감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률적 책임이 피보험자 측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함.
- 환경오염배상 담보 : 오염으로 발생되는 상해나 피해를 담보하는 동 조항은 별도의 약관이며, 제한 조항을 두어야 할 것임.
- 재물보험 : 주로 기업휴지위험 담보와 관련성이 있는데 기업휴지담보는 종업원들이 특정 지역을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장담보를 통해 전염된 지역을 살균 소독하는 조건으로 담보가 가능함.
- 취소와 포기 : 조류독감의 결과에 따라 담보 내용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억제하기 힘들고,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되는 사고에 대하여 성립되는 취소 조건으로 판매자가 보험료를 상환하게 될 것임.

(Insurance Journal, 11/14)

□ S&P, 버뮤다 (재)보험산업 조심스러운 낙관 전망

o S&P는 “버뮤다 보험 및 재보험산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버뮤다의 보험사들은 영업 성과 및 자산의 증가와 함께 수익이 강화되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시장의 변화와 함께 전사적위험관리(ERM) 강화, 수익성 위주의 언더라이팅 집중, 신중한 자산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앞으로 조심스러운 낙관이 전망된다고 밝혔음.

o 2007년 버뮤다 보험사들은 영국의 폭풍 크릴, 호주의 홍수,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 등 수많은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3/4분기말 가중평균 합산비율은 83.2%, 가중평균 매출액이익률(ROR; Return on Revenue)은 29.2%를 기록하였음.

- 3/4분기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2006년 요율인상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언더라이팅 기간(2002-2005)의 적립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양호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 연말에 큰 악재가 없는 한 2007년은 수익성이 매우 강화된 한해가 될 것이지만, 서브프라임 관련 소송 가능성으로 인해 몇몇 회사들은 전문직배상담보 인수가 저지됨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며, 2008년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o 2007년 자연재해의 심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빈도는 잦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손실이 재보험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수보험 시장내에서 대부분 흡수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함.

o 재보험회사들이 유지해 오던 요율 억제 또한 2008년에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며 1월 계약갱신기간에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함.

- 2007년은 모든 종목에 걸쳐 지역, 담보구분, 거래규모에 따라 5~15% 요율이 인하되었던 연성시장이었으며 계약조건에서 재보험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면이 있었음.

(Insurance Journal, 11/14)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생보협회와 의사회, 진단서 전자화에 합의

o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의사회가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환자의 입원 및 진료 상태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전자화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밝힘.

- 지난해부터 일본 보험업계의 골치 거리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한 보험금 누락 또는 부당 미지급 문제'의 확산 원인 중 하나가 의사의 수기작성 진단서를 보험회사가 착오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진단서의 전자화는 생명보험업계가 먼저 제안하였는데 진단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일본 의사회도 협력할 계획임.
- 의사의 진단서가 전자화되면 3일 이내에 진단서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도 이점이 있음.

o 현재 의료기관이 PC로 전자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 진단서의 서식은 생명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는 모든 서식에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계획임.
- 금년 12월부터 주요 병원을 시작으로 향후 2년 안에 약 1000개의 병원에 보급시킨다는 계획이며, 생명보험협회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 조간, 11/16)

□ 손보업계,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으로 대폭 개선

o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한 보험금 누락 또는 부당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음.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는 이 문제가 판매자의 설명부족과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 일본 금융청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한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를 금년 4월부터 제공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o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약관에 대해 글자가 너무 작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보험금 누락 또는 미지급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힘.

- 손보재팬은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서 그림과 표로 보장내용을 나타내는 설명서를 보험증권과 통합하여 함께 제공함.
- 보험계약자가 잊기 쉬운 특약의 가입 유무를 '○'과 '×'로 나타내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계약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약관의 책자를 대형화하고, 컬러판으로 인쇄하여 문자를 크게 확대, 해설문도 함께 넣어 이해하기 쉽게 하였음.
- 토쿄(東京)해상, 니치도(日動)화재해상보험은 내년부터 계약자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단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다시 한번 알리기로 하였음.

(요미우리신문, 11/15)

□ 손보재팬, 인도 합작 현지법인 12월 영업개시

o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손해보험회사인 손보재팬이 금년 1월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11월 16일 인도의 보험규제 당국으로부터 손해보험사업의 인가를 받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밝힘.

- 인도에서의 사업 인가에 따라 손해보험재팬의 인도법인 USGI는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
- USGI는 일본의 손보재팬과 인도 국영은행의 합작으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로 인도의 은행이 손해보험업계에 진출하는 최초의 회사에 해당함.

o 인도 국영은행은 인도 전지역에 약 4,0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기반을 통해 방카슈랑스의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손보재팬은 보험회사 운영에 관한 노하우, 국영은행은 인도 전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판매망을 USGI에 제공할 계획임.
- USGI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의 소매금융 분야에서 사업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인도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o USGI 합작의 개요

- 명칭: Universal Sompo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 본사: 인도 뭄바이시
- 자본금: 약 45억엔
- 회사설립: 2007년 1월 5일
- 영업개시: 2007년 12월 예정
- 임원회장: O.N.신, 사장: 오오츠카 코지
- 출자자 및 출자 비율 : Allahabad Bank (state-owned) 30%, Indian Overseas Bank (state-owned) 19%, Karnataka Bank (private bank) 15%, Dabur Investment 10%, 손보재팬 26%

(니혼게이자이신문, 11/17)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2007년 3/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3)

o 중국 보감위가 11월 초 발표한 <2007년 3/4분기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중국 전역에는 총 186만 명의 보험모집인이 활동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4분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생명보험 영역에서 이들 보험모집인이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는 전체의 52.1%에 이르고 있음.

o 보험모집인을 통한 수입보험료 거수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모집인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4분기에 2.2% 하락하였다가 3/4분기에는 0.3% 하락에 그치면서 하락세는 잠시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험모집인의 수입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임.

o 한편, 보감위는 중개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3/4분기에만 40여 중개기구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출해 냈음.

- 보험중개기구의 위법행위는 주로 1)허위영수증 발행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유용하도록 협력하고, 2)재무제표 허위작성을 통한 세금포탈을 수시로 진행했으며, 3)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지점 설립을 강행하여 무자격 영업을 확대하고, 4)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시보, 11/3)

□ 타이핑양보험그룹 일괄상장에 따른 주식옵션 허용 검토

o 타이핑양보험그룹(太平洋保險集團)의 상하이 A주식시장 상장이 임박하면서 보감위가 이 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 및 성과급을 주식으로 제공하는 '주식옵션'제도 허용 문제를 검토중임.

- 내부적으로는 주식옵션 시행 대상자를 그룹/본사 총경리, 분공사 및 중점지사 총경리 이상 고위층 관리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주식배분 비율이나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o 타이핑양보험그룹의 상장이 실현되면 전국적으로 약 1,000명 이상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주식옵션의 혜택을 받아 단숨에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들은 타이핑양보험그룹의 종업원지주제 및 주식옵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상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은 보험업계가 동 제도를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타이핑양보험그룹 역시 기 상장된 보험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타이핑양보험그룹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자회사 타이핑양애트나(太平洋安泰)의 지분처리 문제도 일반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업계에서는 타이핑양애트나가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룹 내부적으로 이미 지분처리 관련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이핑양그룹에서는 타이핑양애트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방법과 ING베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50% 지분을 전량 사들이는 방법을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매일경제신문, 11/15)

□ 집중휴일제도 변화, 보험회사 상품개발에 영향

o 중국정부가 내년부터 당장 법정휴일 제도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o 지난 11월 9일 새로운 법정휴일제도가 공개되면서 공청단계에 들어섰는데, 5월 1일 노동절 황금연휴가 사라지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도가 예고되면서 결혼이벤트회사와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o 이에 따라 그 동안 여행자상해보험 판매로 짭짤한 재미를 보아 온 보험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정작 AIU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 관계자들은 보험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거 황금연휴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은 관광기간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하이(上海) 지역의 해외여행자 수를 보더라도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 상해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정부의 연휴조정 계획에도 담당자들은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음.

o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제도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AIU가 준비하고 있는 휴가의 분산에 따른 위험수요를 보험상품에 반영한 '분산휴가보험'개발이 대표적인 예임.

(중국증권보, 11/14)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1.2(금)	07.11.9(금)	07.11.16(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4.92	5.42	5.34	5.46	+0.12
	美 10년국채	4.71	4.32	4.22	4.17	-0.05
	英 10년국채	4.73	4.87	4.74	4.63	-0.11
	日 10년국채	1.68	1.59	1.54	1.48	-0.06
주가	韓 KOSPI	1,434.46	2,019.34	1,990.47	1,926.20	-3.23%
	韓 KOSDAQ	606.15	797.66	779.04	755.29	-3.05%
	美 DJIA	12,463.15	13,595.10	13,042.74	13,176.79	+1.03%
	美 Nasdaq	2,415.29	2,810.38	2,627.94	2,637.24	+0.35%
	英 FTSE	6,240.90	6,530.60	6,304.90	6,291.20	-0.22%
	獨 DAX	6,596.92	7,849.49	7,812.40	7,612.26	-2.56%
	佛 CAC40	5,541.76	5,720.42	5,524.18	5,523.63	-0.01%
	日 Nikkei225	17,225.83	16,517.48	15,583.42	15,154.61	-2.75%
	中 상해종합	2,675.47	5,777.81	5,315.54	5,316.27	+0.01%
	대만 가권	7,823.72	9,273.09	8,970.92	8,764.82	-2.30%
	홍콩항셍	19,964.72	30,463.73	29,133.01	27,614.43	-5.21%
환율	원/달러	929.60	902.20	907.80	915.80	+8.00
	원/100엔	781.83	788.40	806.00	829.12	+23.12
	엔/달러	118.90	114.43	112.63	110.45	-2.18
	달러/유로	1.3148	1.4436	1.4676	1.4613	-0.0063
	위안/달러	7.8135	7.4610	7.4207	7.4220	+0.0013